

웹프로그래밍 최종 기말 과제 제안서

제출자: 19 전현재

제출일: 3월 21일

과제명: 최종 기말 과제 제안서

강의명: 웹프로그래밍

목차

1.웹의 주제

2.웹의 구성

3.카테고리 설명

웹의 주제

- ▶ 먼저 웹의 주제는 일상생활에서 지치고 또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던 이들에 위로의 말과 자신이 끄끙 앓고 있는 힘든 점들 남들과 공유하며 위로받을 수 있는 휴식처이다.

웹의 구성

- ▶ 먼저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“오늘 하루도 고생했어요”라는 문구와 함께 앞에 문장보다 좀더 작은 글씨로 “지친 당신을 위로해줄게요”라는 문구가 있고 페이지 아래 “지친 마음을 치유받고싶으면 클릭하세요”라는 문구가 있으며 문구를 클릭하면 두번째 페이지로 이동한다
- ▶ 두번째 페이지는 4개의 각각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각각 ‘힘든 일 공유하기’, ‘마음이 치유되는 노래듣기’, ‘평화로운 분위기의 사진보기’, ‘아무도 모르게 하고싶은 말 쓰기’ 등이 있다.

카테고리 설명

- ▶ 1. 힘든 일 공유하기 : 제목 그대로 오늘 하루 힘들었던 일, 혹은 지금까지 있었던 힘들었던 일들을 공유하며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마음이 치유될 수 있는 게시판이다.
- ▶ 2. 마음이 치유되는 노래 듣기 : 가끔 혼자 울적한 날에 평화롭고 잔잔한 노래를 듣고 싶은 때가 있다. 그런 이들을 위해 평화롭고 잔잔한 노래들을 편하게 들을 수 있게끔 해주는 페이지이다.
- ▶ 3. 평화로운 분위기의 사진 보기 : 힘든 일 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상처 받는 그러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돌아가고 바쁘게 돌아가는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. 그래서 그런 정신 없는 일상속에서 평화로운 자연과 같은 풍경을 보는 것 만으로도 정신 없던 하루의 끝이 평화롭고 차분한 분위기로 끝나게끔 해주는 게시판같은 페이지로 풍경에 맞는 소리(풀 소리, 새 소리 등)도 같이 재생해준다.
- ▶ 4. 아무도 모르게 하고싶은 말 쓰기 : 살다 보면 남들에게 말 못할 일,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 하고싶은 말 들이 있다. 그러한 말들을 아무도 볼 수 없는 공간, 즉 나만 볼 수 있는 공간에다가 하고싶은 말을 쓸 수 있는 게시판으로 메모장 혹은 일기장 같은 형식으로 되어있다.